

도요타시 미술관

1995년에 개관한 도요타시 미술관은 시의 대표적인 관광 명소 중 하나입니다. 도심이 내려다보이는 고지대에 위치하며 과거 고로모 성이 있던 자리에 세워졌습니다. 1년에 수 차례 개최되는 참신한 기획전으로 유명합니다. 또한, 상설전에서는 소장 작품을 중심으로 한 로테이션 전시와 젊은 현대미술가를 중심으로 한 소규모 전시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미술관 컬렉션에는 초기 서양 모더니즘의 구스타프 클림트, 콘스탄틴 브랑쿠시와 일본화가 이마무라 시코(1880~1916), 기시다 류세이(1891~1929) 등의 작품이 있으며, 나라 요시토모(1959년생)와 아이슬란드계 덴마크인 아티스트 올라푸르 엘리아손 등의 현대예술가의 작품도 있습니다. 르 코르뷔지에와 도널드 저드 등이 디자인한 근현대 가구 작품 컬렉션이 있는 것으로도 유명합니다.

미술관 그 자체도 예술작품입니다. 본관은 후에 뉴욕현대미술관의 개수를 담당하게 된 건축가 다니구치 요시오(1937년생)가 설계했습니다. 건물은 나무에 가려져 있으며, 방문객이 구불구불한 오솔길을 걸어들어오면 서서히 그 모습을 드러내도록 설계되었습니다. 1층에는 기획전 공간, 상설전시실, 그리고 일렬로 배치된 기프트숍이 있습니다. 1층 전시실은 자연광이 들어오지 않아 햇빛에 약한 작품의 전시에 적합합니다. 또, 2층으로 이어지는 계단의 한쪽 벽면에는 역사적인 사상가와 예술가, 정치적 지도자들의 이름이 적혀있습니다. 위층은 천장이 높고 자연광이 풍부하게 들기 때문에 주로 현대미술과 조각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이 건물은 관람객이 어두운 아래층에서 밝은 2층, 3층으로 올라가면서 전진하는 느낌이 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것이 3층 복도의 완만한 오르막입니다.

이 미술관에는 미술 작품 이외에도 다양한 액티비티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나고야의 유명 프렌치 레스토랑 '고추텐(壺中天)'이 운영하는 레스토랑에서는 일본식 양식과 디저트, 음료를 즐기면서 도요타의 거리 풍경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또한, 미국의 조경가 피터 워커(1932년생)가 디자인한 조각 정원도 있습니다. 도시를 내려다볼 수 있는 커다란 야외 조각 테라스에는 미술관 건물과 야외 작품을 일렁이는 수면에 비추어내는 리플렉팅 풀(Reflecting Pool, 수경시설의 일종으로 주변 환경을 반사해 경관으로 삼는 시설)이 있습니다.

'도지엔'이라는 다실은 다니구치가 전통적인 다실을 충실히 재현한 공간으로 미니멀리즘, 군더더기 없는 선, 유연한 공간 이용 등 일본의 전통적인 건축양식과 현대 건축에 공통되는 요소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말차와 계절 디저트를 여유롭게 즐길 수 있습니다.

다카하시 세쓰로관도 다니구치가 설계한 것으로, 도요타시 미술관의 별관으로 1995년에 지어졌습니다. 옷칠공예의 선구자인 다카하시 세쓰로의 작품을 전시하고 있는데, 일본 내에서도 드물게 옷칠공예가 한 사람의 작품을 상설전시하는 미술관입니다.